

데스크 시각



채희중 사회2부장

며칠 전 광주 지역 공기업에 근무하는 몇몇 중견 간부들과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 중 타 지역 출신 인사가 지극히 사견임을 전제로 조심스레 말을 건네었다.

“이 지역(광주) 사람들은 정의감이 강해서인지 상대에 대한 문제 제거나 진정이 많은 것 같다. 좋게 볼 수도 있으나 양보나 합의가 적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치열한 것 같다.”

듣는 이의 기본을 고려한 완곡한 표현이었으나 주위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말았다. 타 지역, 이 지역 출신 상관없이 모두가 당혹스러워 했다. 하지만 이 ‘당혹스러운 질문’은 현장 취재를 하는 기자로서는 이미 외지 출신 공직자나 기업인들로부터 수차례 받은 적이 있었다.

은편칼럼



고성희 시인

부유한 사람들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지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해 한국을 찾은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토마 피케티 교수는 강연을 통해 “지난 90년 동안 이룬 경제적 성장의 75%를 부의 상위 10%가 차지한 데 반해 하위 10%는 단 0.1%만을 가져갔을 뿐”이라며 “이와 같은 불균형 분배는 오늘날의 경제구조로 보아 나아질 수 없으므로 국가가 누진과세 등을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가 부를 낳는다는 건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정치심리학자 단 키스 사이먼턴 교수가 2006년 ‘역대 미국 대통령의 IQ’가 대학 졸업자 평균

기고



이동범 미래교육포럼 공동대표

현 정부가 ‘행복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02위라고 한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풍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째서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화목한 가정’을, 고등학생은 ‘돈’을 꼽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물론, 돈을 선택한 비율이 19.2%에 불과하다더라도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예전에도 ‘10억이 생기면 갑부에 가도 좋다’는 청년이 절반에 이른다는 자료가 있었다. 순수와 이상을 좇을지처럼 간직해야 할 시기에 참 슬프고 참담한 일이다.

외부적인 행복이란 외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 행복이다. 예를 들면 남들보다

지역 ‘파이 키우기’의 전략은 상생

“광주·전남의 경제나 사업은 ‘초코파이론’으로 설명하고 싶다. 외국인들이 생일이나 잔치 때 즐기는 호두파이나 피자가 아닌 지름 7cm짜리 미니파이 말이다. 일반 파이나 피자는 서너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초코파이는 나눠 먹으려 하면 부서져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할 때가 많다.”

‘쟁탈전’ 접고 공동개척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남·북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의 대다수는 수도권에 비해 규모가 극히 적고, 그나마 기회도 별로 없다. 이 때문에 타 지역에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조그만 사안도 이슈가 되고, 법적·행정적으로 따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기도 하다.

언뜻 보기에 비리가 많거나 사람들이 억측스럽게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워낙 ‘없는 탓’에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썩은 곳이 이곳이라고 항변했다.

현장 경험에서 짜깁기한 이론이지만 기자의 ‘초코파이론’은 타 지역 인사들에겐 언제나 먹히는 편이다. 무한경쟁 시대

라고는 하지만 열악한 여건의 지자체들은 ‘파이 쟁탈전’ 보다 ‘파이 키우기’를 위해 똘똘해 살 수 있다.

2015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지자체들의 ‘파이 파우치’를 위한 노력, 즉 ‘상생’이 돋보인 1년이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들의 ‘상생’ 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역지자체와 인근 기초지자체, 또는 공동사업이나 이해 관계를 토대로 한 협력 또는 친목이 주를 이뤘다.

올해 최고의 지자체 상생은 철새가 물어다가 주었다. 앙숙처럼 지났던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10년간의 앙금을 털고 손을 잡았다. 수년간 따로 개최했던 ‘금강 철새여행’ 축제를 지난 11월 공동으로 열어 큰 성과를 올렸다. 양 지역은 2004년 비용도 핵폐기장 유치 시부터 대립해 각종 현안마다 충돌하면서 출혈 경쟁과 충돌을 빚어왔다.

기피시설도 함께 유치·운영

신안군과 경북 울릉군은 도서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 관광마케팅으로 파이를 키우고 있다. 거제도와 울릉도가 한국 동·서의 끝이라는 점에 착안해 협약을 맺고, 동서화합은 물론 동반

자 관계를 형성했다.

정읍·고창·부안 등 이웃사촌 3개 시·군은 기피시설인 화장장을 공동으로 유치해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돈이 되는 축제나 사업을 키우기 위해 손을 잡는 경우는 있었지만 민원 대상인 기피시설을 함께 운영해 윈윈하는 협력 모델은 극히 드문 사례다.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출생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던 광주 동구·남구와 화순군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공동으로 기념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 생가라는 말 대신 동구 유적지, 남구 유적지, 화순 유적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중국 관광객들이 이들 세 곳을 고루 둘러보도록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선외의 경쟁은 필요하다. 하지만 경쟁만이 최선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경쟁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파이를 부술 수도 있다. 지역의 파이는 개수를 늘리거나 크기를 키우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다.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 2인, 20% 차지이다. 파이를 키우기 위한 지자체 간 상생은 언제나 옳다.

/chae@kwangju.co.kr

‘잘남’과 ‘못남’ 사이

을 웃들었다고 발표한 걸 보면 재능이나 큰 사람이 ‘세상 살기’에 훨씬 편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모양이다. 하물며 각종 고시와 의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랴.

며칠 전 인과 차 한 잔을 마시다가 직장 상사에 관한 하소연을 들었다.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으로 화려한 스펙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국가공인자격증까지 보유한 엘리트라는 거였다. 따라서 그 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빈틈없는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 몹시 힘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의 말이 패부를 찔렀다. 일부였지만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배려를 생각하지 못할까. 어떤 면에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완해주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은 양심적 의무일 수 있다. 생각해보니 나의 직장생활도 흡사했던 것이 떠올랐다. 탁월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 수준을 요구해 그것에 미치지 못했던 나는 그 때문에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더러 속내를 비출 수 있을 상대를 만났을 때 상위 1%의 배려에 대해 얘기하곤 했었던 기억이 새롭다.

‘세상 살기’ 쉽게 태어난 상위 1%의 사람들

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머리가 나쁘거나 재능 없이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일부만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성장해 사회로 진입한다.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당연한 듯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리더한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 선을 넘어 조직 속에서 자신과 같은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다고 상대를 폄하한다면 참으로 비신사적인 일이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것은 단지 행운일 뿐이지 부여받은 권리가 아니다. 모두가 같은 능력을 부여받아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다음이 있기에 각각의 생각대로 세상을 나누어 살 수 있고 그렇기에 세상은 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해 하고 겸손해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나누어 보탬으로써 조직적으로 업무를 완성하게 도와줘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조금 뒤처진 사람들에게 보완과 협조보다는 질책과 짜증으로 박대한다. 옳지 못한 일이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재능

부족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껏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점만이 유의미할 뿐이다. 늦깎이 ‘대기만성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재능은 쉽고 선택은 어렵다.”라고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능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쉬울 것도 없지만 그 재능을 빛의 영역으로 끌어내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선택의 힘이라는 말은 곱씹어 볼 만하다. 특히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내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위 동료들과 보람을 나누고 존경받을 수 있다면 진심으로 기쁘지 않겠는가.

세필이다. 끝을 생각하며 새로움을 찾을 때다. 모든 것은 끝과 시작이 함께한다. 이제부터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 모두 권위를 끝내고 배려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존경받는 이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지역축제 열세 낭비 흥청망청 되지 않도록

광주에서 매년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가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제는 시민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많은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열세만 축내는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공개된 ‘2015 광주 지역축제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해마다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면에서는 대부분의 축제가 전혀 실적이 없어 낙제점이었다.

모두 12개의 지역축제에는 예산 총액 47억1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수입을 올린 축제는 김지축제(11억 원), 광산우리밀축제(6300만 원), 충장축제(170만 원) 등 3개뿐이었다. 3개를 모아도 11억 6000만여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아예 수입과 무관하다는 분석이다.

위안부 문제 끝내 ‘법적 책임’은 묻지 못했다

한·일(韓日) 양국이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이 최종 합의됐다. 양국의 과거사 갈등과 해묵은 과제인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국교 정상화 반세기 가 다가 가기 전에 적어도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은 끝났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양국 간 협상, 동맹국 미국과 관계된 국제적 환경,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령화에 따른 해결의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것 같다. 아베 신조 총리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얻어냈다는 점은 그래도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이에 기초한 ‘배상’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아 결코 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는 측의 주장대로 이번 합의가 진정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해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물론 정율성축제, 오월장작가요제, 임방울국악제처럼 문화를 소재로 시민 참여 위주인 축제를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많은 노력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격은 서로 다르더라도 감성정착축제가 알차게 열리고 있는 점은 참조할 만하다. 청주축제가 1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최우수축제에 선정되며 수십억 원의 수입까지 올려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살펴 보라야겠다.

다들 5·18과 관련된 축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 예술 분야는 문화장조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 것을 참고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머무르는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접객한다던 축제를 훨씬 풍성하고 생산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역대 정부가 강조해 온 ‘위안부 제도’라는 국가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흠결이라 할 것이다. 향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 해결됐다는 일본 측 입장과 개인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한국 정부의 엇갈린 입장을 고충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공동발표문 없이 장관이 따로따로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도 외교상 이례적인데 문서에 장관 이름으로 사인을 남길 경우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유감없이 남겨준다.

화실이 활시위를 떠난 지금에 와서 합의의 결과에 대해 알기알부해 봤자 철회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양국이 건설적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번 합의 이후 일본의 총리나 정치인들이 협상 타결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 광산 출신인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어머니로부터 투자를 배웠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1년치 용돈을 한꺼번에 줬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투자를 하는 습관은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 대학시절에는 부동산 계약을 직접 하도록 했고 박 회장이 32세의 어린 나이에 지점장으로 일할 때는 남의 돈의 무서움을 일깨워 줬다.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자신에게 생활비를 빌리자 17%의 고금리로 돈을 꿩 주고 갚도록 하기도 했다.

박현주 식 투자

어머니는 박 회장이 주식 투자로 거둔 수익을 되돌려주자 고향에 땅을 사 둔 뒤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힘들면 내려와 농사를 지으라”고 말할 정도로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 땅은 박 회장이 1997년 미래에셋을 창업할 때 종자돈이 됐다. 박 회장은 2007년 펴낸 ‘돈은 아름다움 꽃이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20년 이상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돈에 대한 올바른 관념 덕분이다”라고 썼다. 지난해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미래에셋 지분 50%는 어머니의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투자

DNA’를 바탕으로 고비마다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1986년 증권업계에 첫발을 들일 때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승부사 기질을 보여 줬다. 일면식도 없는 당대 영업의 최고수인 동양증권 이승배 상무를 만났다. 대학시절에는 부동산 계약을 직접 하도록 했고 박 회장이 32세의 어린 나이에 지점장으로 일할 때는 남의 돈의 무서움을 일깨워 줬다.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자신에게 생활비를 빌리자 17%의 고금리로 돈을 꿩 주고 갚도록 하기도 했다.

박 회장이 대우증권 인수에 성공하면서 아시아 최대 투자은행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지금처럼 기업이 투자를 안해선 한국의 미래가 없다”면서 “대우증권 인수를 통해 한국을 투자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투자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최근 대우증권 중심의 인터넷은행 추진을 포기한 것도 화제다.

박 회장 식 투자가 성장동력을 잃은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이다.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 사옥에서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 돈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